



# 예술과 사랑의 향기 가득한 남원

강 목  
자유기교가

남도의 그윽한 예술의 정취가 물씬거리는 곳이 바로 남원(南原)이 아닐까 한다. 남원은 아름다운 자연의 문화관광 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전라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남원은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가 비옥할 뿐 아니라 수리시설이 잘되어 농업이 발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났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서쪽 관문인 남원은 예로부터 ‘천부지지(天府之地) 옥야백리(沃野百里)’라 했고,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전라도 남원은 벼 한말을 심으면 140두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춘향전’의 무대로 널리 알려진 남원 땅은 전라북도의 동남쪽 맨 아래에 있다. 이곳의 동쪽과 서쪽과 북쪽에는 반야봉, 천황봉, 황산, 교룡산 같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여러 높은 봉우리가 줄줄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넓은 들과 구릉이 펼쳐져 있다.

남원시는 백제 초기에는 고룡군으로 불렸고 백제 제5대 임금이 초고왕 때에는 대방군으로 불렸다. 백제와 일본이 서로 문물을 주고받았을 적에 남원은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일본은 금강이나 섬진강의 뱃길을 따라 공주나 부여로 왔는데 지금의 남원시인 고룡군은 섬진강의 상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도 남원은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져서 신라의 다섯 소경에 들게 되었다. 곧 신라는 전국에 금관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중원경의 다섯 소경을 두었는데 북원경은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이고, 서원경은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중원경은 지금의 충주시, 금관경은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 남원경은 지금의 남원시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남원부라 하여 순창현, 임실현, 운봉현, 장수현, 장계현을 거느렸고 조선시대에는 남원도호부라 하여 무주현,

진안현, 장수현, 운봉현, 임실현, 순창군과 전라남도의 구례현, 곡성현, 담양부, 옥과현, 창평현 등을 거느렸다.

그런데 영조 때에 어느 절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찬규라는 이가 영남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의 고향이 남원이었다 해서 십년 동안에 걸쳐서 그 지위가 떨어져 일신현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고 1981년 남원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지리산 북서쪽 자락인 남원시 산내면에는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유명한 절 실상사가 있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학하고 돌아온 증각대사 홍척이 이곳에 절을 세운 뒤 선종을 전파함으로써 실상사는 구산선문 중 으뜸 사찰로 발전하였다. 그 후 홍척의 제자 수철, 편운이 절을 맡으면서 절을 크게 중창하고 더욱 선풍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실상사는 갖은 수난을 겪었다. 세조 때 화재로 전소되어 약 200년 동안 승려들이 부속 암자인 백장암에 기거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300여명의 수도승이 절의 중창을 상소하여 36채의 건물을 세웠으나 고종 19년(1882)에 또다시 건물이 불에 타 없어졌다. 그 후 여러 승려들의 힘으로 건물을 중수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실상사는 국보 1점과 보물 11점을 소장하고 있어 단일 사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높이 5m의 화강석 탑이다. 이 탑은 기단 구조와 각부의 장식 조각이 특

이한 양식을 보여주는 이형 석탑이다. 기단부는 단층 또는 2층의 건축 기단이 아니고 사각형 대석을 놓아서 기단을 삼았다. 호국사찰 실상사에서 돋보이는 문화재인 백장암 삼층석탑은 신라 후기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석탑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운봉읍 화수리에는 고려 말 이성계의 황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황산대첩비지가 있으며, 사적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성계는 우왕 6년(1380)에 왜구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거 침입하자 양광·전라·경상도의 순찰사로서 뛰어난 전술을 발휘하여 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 선조 10년(1577)에 호조판서 김귀영이 왕명으로 비문을 짓고 여성군 송인이 비와 글씨를 썼다. 그리고 따로 운봉 현감 박광옥이 구체적인 전투 경과를 기술하여 황산대첩사적비를 세웠다. 이 비는 청일전쟁 때 파손 도괴되었다가 1957년에 재건되었다. 그러나 비신이 여러 조각으로 깨어지고 비문 또한 거의 마멸되어서 문화재로 지정하였던 것을 해제하고 대신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춘향전’은 변하지 않는 여자의 사랑을 그린 소설로 남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남원하면 누구나 춘향을 먼저 떠올릴 만큼 춘향이는 남원을 대표하는 문학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원시내 천거동에는 춘향전으로 잘 알려진 광한루와 광한루원이 있다. 이도령이 올라섰던 광한루는 조선시대 중기의 목조 건물로 보물 제281호이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양식인 광한루는 원래 세종 원년(1419)에 황희가 광통루란 작은 누를 지어 산수를 즐기던 곳이다. 그런데 세종 26년(1444)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정인지가 광통루에서 노닐다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달나라 미인 항아가 사는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라고 칭한 것에서 광한루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현재의 광한루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인조 16년(1638)에 다시 지은 것이다. 광한루는 연못에 면한 남향으로 뒷마루 주위에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모두 사분합문을 달아 여름에는 시원하게 개방하도록 하였다. 마루 밑의 기둥은 전면과 사우가 4각형 돌기둥이며 나머지 3면은 원형 돌기둥, 그 안쪽은 모두 나무 기둥이다. 광한루 동쪽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인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위에는 뒷마루를 돌리고 난간을 세웠으며 내부는 온돌방이다. 광한루 건물은 정조 때에 이르러 증축된 것이다.

사적 제303호인 광한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에 월궁을 상징하는 광한루와 지상의 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표현한 한국 제일의 누원이다. 세조 7년(1461)에 남원부사 장의국은 광한루를 중수하고 요천의 맑은 물을 끌어들이어 하늘나라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을 만들었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가로막혀 만나지 못하다가 칠월칠석날 단 한번 만난다는 사랑의 다리 '오작교'를 연못위에 설치하였다.

그 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정철이

광한루를 크게 고쳐지었다. 연못 속에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는 봉래섬, 방장섬, 영주섬의 삼신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봉래섬에는 백일홍, 방장섬에는 대나무를 230수 심었으며 영주섬에는 영주각이란 정자를 세웠다. 정유재란 때 광한루의 전소로 누원도 폐허가 되었다가 정조 18년(1794)에 영주각이 복원되고, 1964년에는 방장섬에 방장정을 새로 세워 오늘의 누원이 되었다. 이 누원은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성춘향이 인연을 맺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남원시의 특산물로는 전통 공예품인 목기(木器)가 예로부터 유명하다.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왕실에서 사용한 제기는 남원에서 생산된 목기였다. 지리산 주변에서 많이 나는 오리나무, 고리살나무, 물푸레나무, 버드나무로 목기를 만들고 있다. 특히 목기하면 운봉을 떠올리게 될 만큼 '운봉 목기'가 유명하다.

오늘날 남원 목기는 지리산 자락 산내면에 있는 신라고찰 실상사의 스님들로부터 목기 만드는 기술을 전수 받아 전국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1929년에 산내국민학교에 목공과가 생기고, 1952년에는 전라공업기술학교가 산내면에 설치되어 목공예 기술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목공예는 발전하였다. 현재도 남원시 전역에서 목기를 비롯한 목공예 제품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목기장과 옷칠장 등의 무형문화재 4명이 지정되어 전통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남원지역의 별미음식으로는 추어탕과 속회가 유명하다. 추어탕이 이 지역의 고유음